



임실군, 최정규 성수면장 퇴임식 가져

임실군이 지난 22일 성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공무원과 가족, 동료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규 성수면장 퇴임식을 개최했다. 최 면장은 1989년 6월 공직에 입문한 이래 34년 6개월 동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축산치즈산업과, 문화관광체육과, 재무과 등 무려 27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임실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행사는 퇴임자 공로패 수여, 축하, 퇴임 소감,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가족 친지와 동료 공무원 등은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퇴임하는 자리를 축하하고 아쉬움을 함께 나눴다. 최정규 성수면장은 "공직 생활을 큰 대과 없이 보람 있게 마무리하고 영예로운 퇴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 직원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며 "후배 공무원들이 임실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퇴임 후에도 임실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26일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홍보했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상황을 판단한 대피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다른 세대나 복도,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본인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을 닫고 대기하는 것이 좋지만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온다면 본인 집에서 불이 났을 때와 같이 각각 행동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재이천 진안애 향우회, 장학금 200만원 기탁

재이천 진안애(愛) 향우회(회장 황서정)는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황서정 회장은 "지금은 진안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 언제나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은 우리 향우회 회원들의 공통된 생각으로,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기탁 하게 되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알 림

전주상의 '2024 신년인사회'
희망찬 2024년 새해를 맞아 새해 덕담을 나누고 전북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2024 신년인사회'가 2024년 1월 3일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회 주최로 라한호텔에서 열립니다.
▲일시: 2024년 1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호텔라한 온고홀(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85)
▲문의: 063-280-1100(전주상공회의소)

인사

전주대학교
○4급 승진 ▲정보통신지원실장 김경훈 ▲LINC3.0사업팀장 이진석 ▲비서실장 정재우
○5급 승진 ▲학술정보운영실장 양정현 ▲인문콘텐츠대학 행정지원실장 김연정 ▲재무지원실 인병진 ▲총무지원실(파견) 유봉수
○6급 승진 ▲총무지원실 이충권 ▲학생지원실 김승아
○7급 승진 ▲정보통신지원실 이정민 ▲정보통신지원실 정주영 ▲비서실 이대신 ▲기획예산실 최영찬
○8급 승진 ▲학생지원실 최창용 ▲재무지원실 주원탁
○기능직 9급 승진 ▲산학협력지원실 방성혁 ▲체육부 신찬호 (2024년 1월 1일자)

전북대 박종열 박사과정생, 우수발표상 수상

대한수의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서 닭 전염병 백신 개발 연구 성과 발표

전북대학교 박종열 박사과정생(수의학과)이 최근 제주에서 열린 '2023년 대한수의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닭 전염병을 방어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종열 박사과정생은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V)의 HA 항원과 IBDV의 VP2 항원을 발현하는 다가 HVT 벡터 백신의 구축 및 효능 평가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종열 박사과정생은 칠면조 허피스 바이러스(HVT)에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을 접목해 중형형 항원변이형 감염성 괴혈병 바이러스(IBDV)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 Y280)의 유전자를



각각 삽입해 다가 재조합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닭 감보로병(전염성 F낭병)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현장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2종에 대해 하나의 백신으로 모두 방어할 수 있어 현재의 백신접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열 박사과정생은 "현재 두 가지 질병 외에도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기술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가백신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열 대학원생은 지난달에 열린 한국가금학회에서도 '칠면조 허피스 바이러스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재조합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개발'로 우수발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학생 투·개표 절차 참여 보장... 전북대-전북선관위 '맞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대학생들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재성)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6일 전북대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투표 및 개표사무 등 절차 전반의 과정에 전북대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대는 대학생들의 투·개표 사무 등 선거과정 참여를 위한 모집과 홍보,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만큼 생생한 경험과 공부는 없을 것"이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모든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우리 학생들이 선거관리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오재성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투표와 개표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장애이체육회, 체육 빛낸 유공자 선정 시상식 가져

익산시장애이체육회는 26일 팔봉동 반다비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2023년 익산장애이체육회 체육을 빛낸 각 분야의 유공자를 선정해 체육상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허 전 부시장을 비롯한 최중오 익산시의회의장, 시·도의원, 수상자 가족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익산장애이체육회는 이번 체육상 시상식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공정한 심의를 거쳐 장애인체육 분야에서 익산시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개인 59명 및 단체 1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익산장애이체육회 왕경배 사무국장과 체육진흥과 한규상 주무관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표창은 익산장애이체육회 김희진 봉사단장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전라북도지사 표창은 익산장애이체육회 이해석 부회장의 2명, 전라북도교육감 표창은 관세연(원광여자중학교)의 5명,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장 표창은 남미희(이사)에게 돌아갔다. 익산시장 표창은 공로, 유공, 봉사부문으로 나뉘어 김지연(육상 선수)의 14명, 익산장애이체육회 회장 표창에는 우수선수부문 고미정(보치아)의 9명이 수상했다. 이 밖에 김진규(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손수길(이사), 이도연(사이클선수)에게는 공로패를, 조규대(시의원), 김미



선(시의원), 최의봉(이사)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애인체육회는 전문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한 선진장애인 체육발전과 장애인 기량단체 운영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체육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장애이체육회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수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며 "평범 장애인 체육복지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며 장애인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량을 키우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연말, 정읍 곳곳에 따뜻한 손길 '잇따라'

연말연시를 맞아 정읍시에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지난 22일 황토현권역영농조합법인(대표 김호인)은 덕천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덕천면사무소(면장 김영덕)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황토현권역영농조합법인은 매년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며 지역사회 내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같은 날 정읍초 2학년 공매울 군은 북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모은 용돈 100만원을 희망 2024나눔캠페인에 기탁했다. 같은 날 내장상동 통장협의회(회장 최경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내장상동에 전

달했다. 지난 21일 하림 정읍공장은 정읍시장에인복지관 송년식행사에서 이웃돕기 성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20일 주식회사 거안 박영춘 대표는 정읍시청을 찾아 희망2024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나눔을 실천해준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호원대 노재욱 학생, 석탑산업훈장 수상

호원대학교 노재욱(호텔외식조리학과 3년, 시가지장6급) 학생이 지난 22일 석탑산업훈장(육조 근정훈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 분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3월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8번째 종합우승을 일궈낸 선수들에게 훈장을 비롯해 총100점의 정부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노재욱 학생은 지난 2021년에 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 대한민국 요리부문 국가대표 1인에 최종 선발됐다.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경쟁해 2020년 전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금메달(요리조종)을 수상했다. 특히 노재욱 학생은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출전 선수중 최연소(21세)로 참가, 기술위원으로 함께 한 호원대 호텔외식조리학과 홍인기 교수(기술위원), 조은혜 교수(부기술위원)의 지도하에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에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아 노재욱 학생은 대한민국 석탑산업훈장(육조 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정기술위원인 홍인기 교수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도동동 발전협의회, 이웃 사랑 물품 기탁

남원시 도동동은 동 발전협의회(대표 김희만)에서 26일, 백미 60포, 두유 40상자, 라면 20박스, 현금 50만원을 통해 기탁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매년 300만원 정도의 성금품을 기부하는 등 올해도 기탁했으며, 기탁한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및 1인 1가구 찾아가는 소풍행정 방문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희만 대표는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만경중 학생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 만경중학교(교장 신성우) 학생들이 26일 만경음행정 복지센터(읍장 김창환)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만경중학교는 12월 총학생회(학생회장 이태양) 주관으로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고 축제 기간 학생들이 직접 만든 먹거리를 판매한 수익금 63만8,000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신성우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판매한 수익금으로 우리 이웃에게 도움을 드리게 되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재 기자



김제 금구면 새마을부녀회, 이웃돕기 물품 전달

김제시 금구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순이)는 26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물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금구면 새마을부녀회가 폐농약 공병 수거 판매 수익금으로 화장지, 설탕, 식용유 등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판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더욱 훈훈하고 뜻깊게 진행됐다. 김순이 부녀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회원들의 노력이 담긴 성금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관내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를 많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재 기자